

4-1 10시 40분
5월 12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 날씨: 구름이 약간

제목: 내 생활을 도돌아 보며...

내 생활에 대해 소개할거다 세수를 하고 엄마가 차려주신 맛난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내 책상에 앉아 펠통에서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내 책장에 놓여 있던 국어문제집을 들여 내 책상 위에 올려 놓고, 한문제 두문제, 서문제 풀고 있었다 마침내 내가 계획한 곳까지 풀자, 수학학원 숙제를 마치하기 시작하였다 수학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중 2번짜이다 허~ 겨우 모든 거 끝나자 머리를 식힐 겸 책을 읽었다 나는 책이 직접 읽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? 하고 생각하였다 책으로 머리를 식히고 학교숙제와 영어숙제등 모든 숙제를 마무리 하였다 나는 모든 걸 마치자 기분이 성쾌하고 매우 뿌듯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엄마 아니 가족과 함께 쇼핑을 갔다. 사고 싶은게 많았지만 나는 꼭 참았다. 쓸데없는 걸 사면 양보기 때문이다 쓸데없는걸 사면 쓰지도 않을 거 면서 돈만 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사고 싶은건 강아지(말티즈 아 요크셔터리어)이다 하지만 울동생이 텔 알리르기가 있어서 엄마가 않된다고 하셨고 또 울동생 말고도 엄마 아빠도 텔 알리르기가 약간 있다며 나중에 내가 가서 사라고 하셨다.